

“함께하지 못한 첫 명절” 유가족 눈물바다

추석날 학동 붕괴참사 현장 희생자 추모제

김종호 부시장·동구청장·정치인 등 함께 자리 협의회, 책임자 처벌·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어찌 몇몇 문자와 문장으로 이분들에 대한 그리움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추석 당일인 지난 21일 광주 학동 붕괴 참사 현장에서 희생자 추모제가 열렸다.

이날 추모제에는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을 비롯해 김종호 광주시 행정부시장, 임택 동구청장, 이병훈·조오섭·이형석·민형배 의원 등 단체장과 정치인들이 함께 자리했다.

추모제는 묵념으로 시작해 추모사와 애도사, 헌화·분향, 유족 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이전의 유족협의회장의 추모사가 시작되자 곳곳에서 유가족들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태어날 손주의 초음파 사진을 꺼내들며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만삭의 딸, 아들을 잃고도 아직 떠나 보내지 못한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를 보내고 고통 속에 사

는 남편 등 유가족들의 가슴 절절한 사연이 하나 둘 울려 퍼졌다.

함께 걸었던 산책로에서 어머니의 부재를 실감하는 아들, 고인이 된 어머니 핸드폰에 전화를 걸어보는 딸, 아직 고등학생인 막내를 떠올리며 눈물 흘리는 가족들의 이야기에 추모객들의 눈시울도 금세 붉어졌다.

이 회장은 “오늘은 그들 없이 보내는 첫 번째 추석이다. 이유도 모른 채 죽음을 맞이한 고인들을 위해 추모의 시간을 마련했다”며 “어쩌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이제 없다고 말하는 그분들을 보낼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희생자들을 참사의 제물로만 기억하면서 분노와 고통을 삭힐 순 없다”며 “남은 아홉 가족들은 고인들을 단순한 희생자로 만들지도 않겠다”고 덧붙였다.



추석인 21일 오전 광주 동구 학동 철거건물 붕괴참사 현장에서 열린 희생자 추모제에서 유가족들이 헌화하고 있다.

/김애리기자

유족 한성은씨는 “우리 가족은 사고 할 때마다 여전히 울고 있다”며 “사랑하는 가족을 한순간에 잃은 슬픔은 어디에

도 견줄 수가 없다”고 흐느꼈다. 한씨는 “적폐인 불법 재하도급을 방지

한 정부, 돈을 눈먼 살인기업 현대산업개발, 학동4구역 재개발조합 비리 관련자들, 관리감독 책임을 내팽개친 광주시와 동구청, 돈 때문에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건물을 쓰러뜨린 현장 관계자들은 고인들이 느낀 그 공포와 끔찍한 고통의 책임을 똑똑히 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더 많은 사람이 함께 살아 가려면 안전은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절대가치임을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일선에서 실천하는 사회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호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희생자를 애도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책임자 처벌과 함께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조했다.

김 부시장은 “안타깝게 돌아가신 희생자분들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표한다”며 “이번 사고는 절대 일어나선 안 될 인재였다. 법 개정과 제도 개선만이 희생자들의 한을 풀고 유족의 눈물을 닦는 길이다”고 언급했다.

이어 “광주시는 유족들과 끝까지 뜻을 함께하면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더이상 무고한 시민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명진기자

광주 ‘붕괴참사’ 관련자 재판 제각각 ‘혼선’

증인신문 등 중복...병합 요청 불구 “첫 공판 뒤 결정”

광주 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 부실 철거에 개입한 당사자들의 재판이 병합되지 않고 각각 따로 진행되면서 혼선만 빚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주요 혐의가 겹치기 때문에 증인신문 등 중복을 막기 위해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병합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재판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현재까지 부실 철거를 지시·이행하거나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 중인 피고인은 김리자, 하도급 업체 및 원청 현장 관계자 등 8명과 업체 3곳 (HDC 현대산업개발·한솔기업·백솔건설)이다.

이들 모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공통적으로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재판은 합의부 1곳 (형사11부 정지선 부장판사), 단독 재판부 3곳 (형사2단독 박민우 부장판사·형사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형사10단독 김용민 판사)에서 별도로 열리고 있다.

이들은 해체계획서와 규정을 무시하고 공사를 하거나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지난 6월9일 광주 학동4구역에서 지상 5층·지하 1층 규모 건물 붕괴 사고를 유발, 인근을 지나던 시내버스 탑승자 17명 (사망 9명·부상 8명)을 사상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순차적으로 기소했으나 사실상 같은 쟁점을 다루고 있다며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2주가 지나도록 법원이 별다른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서 결국 4차례 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모두 진술이 매번 반복됐다.

향후 증거 조사를 위해 신청한 증인들도 상당수 겹쳤다.

앞서 지난 1일 재판에서 형사11부 (정지선 부장판사)는 합의부가 사건을 맡는 쪽으로 다른 재판장들과 논의했으나 일단 각 재판부에서 첫 공판을 한 뒤 결정할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하지만 다른 재판장들은 하나같이 “형사소송법상 재판 병합은 합의부에서만 결정할 수 있고 증인신문을 진행하면 그 재판장이 판결까지 내려야 한다”면서 병합 논의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대로 재판이 진행된다면 증인신문 대상이 겹치고 각 피고인이 서로의 증인으로 법정에서 서야 하는 등 재판 절차가 계속 중복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수기자

피해자 가족들은 재판이 끝나자 “붕괴 책임자들이 정당하게 처벌받는지 지켜보고자 방청했는데 끔찍한 상황을 반복해서 들어야 해 괴로웠다”며 “피고인들을 한자리에서 재판하면 될 텐데 왜 법정을 옮겨가며 이 피고인이 저 법정의 증인이 되어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피해자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이우스 김정호 변호사도 “진실 규명 및 양형 형평성을 위해 재판을 병합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변호사는 “유족들은 가족을 잃은 슬픔에 거액의 합의금을 받았다든 유언 비어들까지 겹쳐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부디 같은 쟁점의 사건들을 병합해 조속하고 효율적으로 재판이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수기자

역주행 SUV, 버스·승용차 충돌 17명 사상

화순 사평 국도...SUV 운전자 숨지고 임신 아내 중상

화순 한 국도에서 SUV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승용차·고속버스를 잇따라 들이받아 SUV 운전자가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22일 화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19분께 화순군 사평면 왕복 2차선 국도에서 A(35)씨가 몰던 SUV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승용차·고속버스를 연이어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 A씨가 숨지고 조수석에 탄 임신부 아내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에 옮겨 수술을 받았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순=이병철기자

승용차·고속버스에 타고 있던 15명도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A씨는 명절을 맞아 고향집을 거쳐 임신부 아내와 함께 처가로 향하던 중 부주의로 인해 맞은 편 1차로를 나란히 주행하던 승용차·고속버스를 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SUV 블랙박스 분석 결과 특정 구간부터 A씨 부부의 대화가 끊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의 졸음운전 가능성도 열어두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최명진기자

자영업자 실종 3개월만에 야산서 숨진채 발견

사업실패 후 실종된 40대 남성이 3개월 만에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남성은 농자재 배달 사업을 하다 채무가 늘어 파산 신청을 하는 등 경제

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10시7분께 해룡면 야산 중턱에서 김모(48)씨로 추정되는 시신 1구가 발

견됐다. 시신은 심하게 부패해 있었으나 산 아래쪽에서 김씨의 승용차와 신분증 등이 발견됐다.

경찰은 18일 낮 12시26분께 순천시 해룡면 야산에서 보름가량 차량이 주차돼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일대를 수색 중이었다. 경찰은 지난 6월17일 무안에서

가출 신고가 접수된 김씨의 승용차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과 의용소방대원 등 80여명을 동원해 이틀째 수색하다가 시신을 발견했다.

김씨는 농자재 배달 사업을 했으나 채무가 늘어 파산 신청을 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순천=남정민기자

60플라워

Flower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야외 결혼식
칠순잔치
체육대회
야유회

<http://www.kukje9.co.kr>

“맛과 멋을 새롭게”

출장뷔페 전문외식산업

▶ 자매회사: 제사나라 062)527-0044/011-602-2278

▶ 국제외식산업(주) 문의.062)262-2278/011-602-2278